

물가 고공행진 속 상승세 주춤...가을 오면 정점 찍나

전월대비 상승률 2개월 연속 둔화...8-10월 정점론 솔솔 한은 “당분간 6% 상회”...통계청 “7%대까지는 아닐 듯”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 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다시 한번 기록했지만 상승 속도가 조금이나마 느려지고 있다.

6%를 훌쩍 뛰어넘은 소비자물가가 가을바람이 불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이유다. 다만 이는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것일 뿐 6%

대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개월째 둔화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74(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고 2일 밝혔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올랐다. 1월과 2월 3% 후반대에서 머물다가 3월과 4월은 4%, 5월은 5%, 6월에는 6.0%까지 올랐다.

그리고 7월에 다시 한번 최근 고점을 경신, 6.3%까지 오른 것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0.6%, 3-5월에 0.7%를 기록하던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에 0.6%, 7월에 0.5%로 조금씩이나마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승률이 확대되는 기류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100달러 넘짓...대외요인 약화
이유는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을 추동했던 주력 엔진인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가 최근 들어 잠시 안정을 찾은 탓이다.

6월 중순께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두바이 유가 가격은 최근 들어 100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7월 중 석유류가 물가 상승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59%p로 전월(1.74%p)보다 낮아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도 유사한 흐름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은 “7월 소비자물가는 폭염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 불안 등이 더해지면서 고점을 경신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둔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7월과 8월 중 한 달이 물가 고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7% 가능성 크지 않다”

정부 안팎에선 물가 정점론이 서서히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8-9월 중 고점을 더 경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대외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음 달은) 6%대 이하로 가진 않겠지만 7%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정점론에는 몇 가지 가정이 붙는다. 추 부총리는 9-10월 물가 정점 전망과 관련해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추석을 앞두고 기상 여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다. 그렇다고 물가가 당장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 통계청은 5%가 넘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도-산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중국 산시성 린우 당서기와 영상으로 '자매결연 5주년 기념 선포 세리머니'를 함께했다.

전남도-中산시성 교류 확대한다

자매결연 5주년 행사...수출·관광·청소년 분야 다채

전남도는 2일 중국 산시성(山西省)과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는 교류 행사 개막식을 개최했다.

양 지역은 2007년 교류를 시작해 2017년 정식 자매결연을 하고 협력을 확대해왔다.

한·중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개막식은 '지속되는 우정, 아름다운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김영록 지사, 린우(林武) 산시성 당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 소개, 한·중 청소년 솜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등을 하고 5주년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전남도와 산시성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총 43개를 상대 지역 청소년이 직접 평가해 총 7개 영상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개막 행사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양 국 외교부를 대표해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박상광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등이 함께 했다.

린우 산시성 당서기는 “전남도와 산시성은

그동안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깊은 우정을 자랑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절감, 스마트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와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 인문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산시성의 역동적 발전 성과를 축하하면서 “전남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환경,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전남도-산시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수출 상담회, 관광 홍보회, 청소년 교류회 등 분야별 교류회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또한 도민이 함께 하도록 8일까지 전남도청, 9일부터 20일까지 도립도서관에서 산시성 홍보 사진전을 여는 한편 유튜브를 제작해 으뜸전남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특위 위원장에 한춘옥 도의원

“성공 개최 위한 전방위 활동 나설 것”

전남도의회는 최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사진)을 선출했다.

한춘옥 위원장은 “박람회가 2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과 전방위 의정활동을 통해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박람회 이후 사후활용이나 후방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순천 출신 신민호·김정희·김정이·정영균·한숙경·김진남 의원,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내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 간 관람객 800만명을 목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을 중심으로 순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2만5천여명의 고용효과와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재정기자

김태진 서구의원 “기후위기대응특위 신설해야”

탄소중립 정책·지원센터 등 제안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김태진 의원은 지난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집행부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역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포, 이와 관련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일관되고 지속적

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TF팀을 민선 8기 공식 위원회 체계로 전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조속 구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 통해 제도적 정비 선행 ▲민간 주도 '서구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의 시급성과 더불어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센터와 주민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마을 단위로 하나의 역량으로 모을 수 있는 지역사회네트워크팀이 병행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희기자